

연중 제 2 주일

기도서 329면 (가해)
제 1 독서 : 이사 49, 3, 5-6
제 2 독서 : I 고린 1, 1-3
복 음 : 요한 1, 29-34

순정이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할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요한 1, 30)

강론

“그래도 고통을 거부하시렵니까?”

유 장훈신부 / 신태인천주교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인사를 나누고 소원성취와 평화를 기원하면서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갖가지 무거운 고뇌와 압박에서 풀려나, 새 삶의 환희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서는 역사상 인류가 맞이했던 참 기쁨의 순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구원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어린양”(요한1,30)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양은 천벌을 받은 자처럼 물결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온갖 학대와 고통을 겪었으며 마침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말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 “야훼의 종”(이사야 49,3)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양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된 해방과 새 삶이 가능했고, 희생된 양 자신은 온갖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어 옥좌에 앉은 “왕중의 왕”(묵시록 17,14)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과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꼭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의혹과 당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요한17,25)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행복을 원하면서도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기적적으로 없애준다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곳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하시지 못한 고통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마8,17).

소리

교회 안에서의 행복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곧 신앙 안의 우리들 형제자매인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이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뜻에서 나그네인 것이다.

세상에는 ‘복종’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와 달리 ‘순명(順命)’이 있다. 복종은 명령하는 쪽이 명령받는 쪽에 무조건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순명은 다르다. 엄연히 그것은 윤리덕(倫理德), 그러니까 자유의사로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응하는 것이다.

순명의 가장 고유한 가치는 응하는 사람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하느님께 하는 순명은 그분이 절대자이시므로 절대적인 순명이어야 한다. 그만큼 순명하는 행복도 크다.

순명하는 행복이라니, 세상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자기 이익에 철저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순명은 값지고도 귀하다. 이런 세상을 바로잡는 길들이 직접혁명과 같은 길과 간접적 변화의 길로 다양할 때 교회가 택하는 길은 나중의 것이고, 세상 속의 교회인 만큼 우리가 순명의 덕을 잘 지킬 때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혁은 꼭 성취될 것이다.

좀 간단하게 말해보자.

교회 안의 구체적 사례로는 언제 어떻게 순명의 기회가 올까? 가장 먼저 미사와 전례에 정성스레 경청하며 응하는 일, 그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순명으로 첫번째의 것이다. 본당신부님의 사목활동에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응대하고 따르는 일, 그분의 말씀과 권고의 행동에 일흔 내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웃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를 주시해가며 기도해 나가는 일이다.

순명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느님은 참 서운하셨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행복이다.

순정이 산책



천주의 어린양(Agnus Dei)

‘천주의 어린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 듣기 위해서는 다음(출애굽기 12장2절~14절) 성서 구절에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를 떠나던날 밤 야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 나는 에집트 땅을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그러나 그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너희의 집임을 알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 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을 빠스카 축제(과월절: 過月節)라 하여 민족 최고의 축제일로 지내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무죄한 어린 양의 덕분으로 죽음을 면하고 살았듯이 우리는 다른 어린양 즉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덕분으로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이 되심은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죄도 그분 안에서 녹아 사라진다.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했듯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피를 씻고도 남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편집부)

미사해설 1

미사의 명칭

오늘날 「가톨릭(천주교) 교회의 공식 예배」를 미사(Missa, Mass(英))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공식 예배 형태를 미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4세기 때 부터이다. 신약 성서에서는 주의 식사(I 고린11.20~33), 빵을 나눔(사도2, 42, 46)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빵을 나눔 때 유대인의 풍습대로 감사의 기도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다케에서는 예우카리스티아(감사)라고 부르고 있다. 초대 교부인 이레네오, 치뿌리아노 등에 의하면 미사란 말 대신 「봉헌과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다. 동방 교회에서는 주일의 신도들의 집회를 도미니쿰(dominicum, 주님과 함께)이라 했고 우리 서방 교회(가톨릭 교회)에서는 콜렉타(Collecta-모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Missa)라는 단어는 미테레(Mitere 돌려보내다, 파견하다)에서 나온 단어로 원래 로마 원로원이나 재판소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 참석자들을 돌려 보낼 때 사용한 용어였다. 이 용어가 우리

교회의 용어로 사용된 것은 초기 교회에서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성찬의 전례에 들어 가면서 영세를 받지 않은 예비교우들을 돌려 보내는 성대한 예식에서 비롯 되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교우들을 파견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Ite Missa est)라는 말로 돌려 보낸다. 미사(Missa)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미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절이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절 동안에 들은 기쁜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파견(Missio)한다는 뜻이다. 성당 안에서의 예절이 끝났으니 각자 세상 안에서의 미사(파견)를 시작하라는 말이다. 우리의 미사가 그저 성당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예절로 끝난다면 미사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기쁜소식을 전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파견될 때 의미있는 미사를 드리게 된다.

「미사가 끝났다」함은 「복음을 전하러 파견된다」라는 뜻을 잇어서는 안되겠다. ■ 편집부 ■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 · 무대복 · 미혼대어
비데오 · 아외스범출영
신부화장
유 순례 (가티리니)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양재 · 한복 · 흥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정원 · 민정당시원
☎ 86-2715

효자 · 삼천 상권의 쇼핑문화 공간

효 자 쇼핑

1990년 1월 17일 오픈
최 낙 영 (희지노)

B1 유럽형 슈퍼마켓 SPAR

효자테니스코트장 건너편 ☎ 86-3551, 3552

잡 관!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요한1,33)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고향도 생애도..... 당신께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꼭 무엇에 홀린 기분입니다.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맨처음 들은 것이 언제 어디서였던가? 그러자 30년이 다 되도록 까맣게 잊어 왔던 그날의 어이없던 사건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홉해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죠. 같은 또래의 짝꿍이 거의 무너져가는 자기 집 안방으로 날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손바닥만한 이상한 쇠뭉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 "에! 이것을 죽은 사람 이마에 대고 '예수 하나 예수 하나' 하면 죽었던 사람이 팔딱 일어난다." 그때 저는 굉장히 무서웠지요. 그런데 먼 훗날 생각하니 그 '이상한 쇠뭉치'는 다름이 아닌 '십자고상(十字苦像)'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하나', '예수 하나'라고 들었던 그 주문(呪文)은 사실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하는 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이죠. 정말 어이없는 이 사건이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셨지요. 전 비록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지만..... 그리고 내 생애 동안 일어났던 수백 수천억의 사건 사건 속에 함께 하셨어요. 베짜는 여인이 수천 수만의 올을 엮고 엮어서 아름다운 비단을 짜내듯 당신은 수천 수만의 섬리를 엮어 오늘의 '나'를 짜내셨지요. 단 한 올만 바꾸셨더라도 저는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일초도 제 걸을 떠나지 않으셨지요.

주님! 전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셨으며 나의 성체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언합니다.

"당신은 우리 죄많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이십니다"라고. (요한1,34) 권

교 구 소 식

- ※. 고신봉동공소 성당 축성식: 8일 11시 주례-교구장직무대행 김환철 신부님
- 1. 재정심의회: 16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 2. 참사회: 16일(화) 오후2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 3. 선교부장 연수: 21일(일) 오전10시 센타 회의실
- 4. 혼인강좌: 28일(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회의실
- 5. 전동소년 어린이들의 모후 꾸리아 윌레회: 1월14일 오후2시 장소-전동성당 교육관
- 6. 흥분국에서 알림사항: 1월28일자 주보소식은 설날 연휴관계로 1월19일 오전까지 도착토록 사무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 7. 중·고 임원연수회: 1월-1990. 1. 20(토)~22일(월) 장소-무주자연학습원 대상-본당 임원단 집결-1.20(토) 오후1:30 가톨릭센타 신청-교구청 교육국
- 8. 전주선택: 1월-1990. 2. 9(금)~11일(일) 장소-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 남녀 회비-20,000원 접수-교구청 교육국(85-0041)
- 9. 1월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월19일(금) 전동성당 소강당 밤11시부터
- 10. 축! 영명: 17일(성안토니오) 김진룡, 최용준 신부님 축하합니다.
- 11. 꾸르실로 여성30차: 1월15일(월)~18(목) 남성35차: 2월22일(목)~25일(일) 1월15일까지 추천마감

영화상영

영화제목: 어린아이(The kid)(찰리채플린), 빨간풍선 2중류
 상영일시: 1월22일 오전11시와 오후2시 2회상영
 장 소: 가톨릭 센타 3층 강당 관람료: 500원

요심이 (858) 김병오



유신군이 살아있는 고급우유

파스퇴르우유

박성자(루시아)

파스퇴르우유
 김제부인대리점

☎ (0658) 45-0794

출산용품·유아복·아동복

리오부라보

윤은순(글로벌리아)

이리시 중앙동 사랑방 입구

☎ 3-3022

혼수전문·커튼·약혼복

서울주단

김완준(안토니오)

박윤화(베로니카)

중앙성당 정문앞

☎ 3-0453, 77-5095

大入종합반

개강 1월 15일

여러분의 의지와 한센의 의지가
 만날때 소망스런 미래를 약속합니다.

대입 전문 한센학원
 20-HINB 074 7476

정신과학 세미나

주 제: 고도의 두뇌 및 정신력 활용법
 효 과: 스트레스해소, 수면조절, 신앙심화,
 문제해결법, 기억력증강, 초능력학습법
 타인컨트롤법, 기역력증강, 목표성취법.
 때 : 1월16일(화) 및 19(금) 오후2시와7시(2회)
 곳 : 전주 가톨릭 센타 대강당
 문의처: (042) 255-6833, 참가비 1,000원
 연 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임순남·무진장 본당소식 □

*남원

사제관 33-1004 주임신부 고 경 훈
 사무실 33-4004 보좌신부 이 사 정
 수·유 33-4005 사목회장 윤 기 호

- ※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2차헌금(협조바람)
1. 구정합동 위령미사 접수합니다: 오전 5시30분-10시미사
 2. 예수봉헌축일 초 축성미사: 2월2일 오전10시 1년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각가정마다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합니다. (사무실 수녀님께 문의)
 3.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어린이들과 중고생의 신앙교육을 지도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할 희망자는 수녀원에 문의바랍니다.
 4. 구역장 일일피정: 1월16일(화) 오전10시부터 본당에서 '일일 피정이 있사오니 구역장님과 서기님들은 전원참석 바라며 일반 신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예비자를 따듯하게 인도합니다: 2월6일(화)부터 교리시작(오전 10시30분-저녁7시40분-(일) 오전11시-(토) 오후2시)
 6. 사제서품 1월 23일 10시30분(전주중앙성당) 사제서품 받으실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드립니다.
 7. 차주전례: 헤설-이건테 독서-최락찬부부
 학생미사: 헤설-장선호 독서①최영찬 ②오정희
- 지난주봉헌금: 440,160원

*무주

사제관 22-2308 주임신부 오 현 택
 사무실 22-2398 사목회장 이 정 하
 수녀원

1. 교리교사회: 90년도 세임원 선출 회장-김효상(미카엘) 부회장-최은숙(유리안나) 서기-박혜자(새실리아) 총무-김미경(새실리아)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윤창선(요한), 이육주(사베리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 축! 혼인: 신랑-정영수(벨라도)란 신부-임남(아카나)양이 1월14일 주일 12시 혼인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3. 본당청소안내: 매월 첫주-신동1,2구역 둘째주-신동3구역 북, 중동구역 매월 셋째주-동남동, 북실구역 넷째주-서동1,2,3구역 매월 다섯째주-학생회 부탁드립니다.
 4. 중고학생회: 90년도 세임원 선출 회장-남기연(분도) 부회장-최미경(루피타) 총무-김선주(수산나)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신효문(보니파시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 지난주봉헌금: 148,640원 □ 교무금: 120,000원
 □ 구유헌금: 48,950원

*순창

사제관 53-0414 주임신부 박 기 준
 사무실 2-2234 사목회장 홍 석 열
 수녀원 2-3135

- ※ 금주의 성서: 고린전1.1~3 요한1.29~34
1. 성심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청년회: 오늘 공식미사후 (회비 1,000원)
 3. 성전보수헌금: 김순 10만원
 4. 각 가정의 주수나 전화번호가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5. 연중 봉헌금(교무금): 미납되신분 속히 납부하시고 90년도 교무금 성심성의껏 자진 신입합니다.
 6. 구정합동위령미사 예물: 사무실에 접수
- 금주전례: 헤설-김요원 독서①조삼현 ②황명순
 봉헌-조형, 김아현 안내, 청소및 기도-정의의 거울
 차주전례: 헤설-안정임 독서①김관섭 ②김성애
 봉헌-이승택씨 부부 안내, 청소및 기도-하늘의 문
- 지난주봉헌금: 120,250원 □ 교무금: 132,000원

*임실

사제관 43-3661 주임신부 박 인 호
 사무실 42-2164 사목회장 한 장 현
 수녀원 42-2164

- ※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1. 사제서품식: 23일(화) 전주 중앙성당
 2. 구정합동위령미사: 관촌(27일 8시30분) 임실-10시30분 오수-오후3시
 3. 오수1구역 모임: 16일(화) 오후2시 산서·이우형씨대
- 지난주봉헌금: 203,790원 □ 교무금: 303,000원

*장계

사제관 351-0111 주임신부 박 진 랑
 사무실 사목회장 이 환 구

1. 교리교사회: 90년도 세임원 선출 회장-김효상(미카엘) 부회장-최은숙(유리안나) 서기-박혜자(새실리아) 총무-김미경(새실리아)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윤창선(요한), 이육주(사베리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 축! 혼인: 신랑-정영수(벨라도)란 신부-임남(아카나)양이 1월14일 주일 12시 혼인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3. 본당청소안내: 매월 첫주-신동1,2구역 둘째주-신동3구역 북, 중동구역 매월 셋째주-동남동, 북실구역 넷째주-서동1,2,3구역 매월 다섯째주-학생회 부탁드립니다.
 4. 중고학생회: 90년도 세임원 선출 회장-남기연(분도) 부회장-최미경(루피타) 총무-김선주(수산나)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신효문(보니파시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 지난주봉헌금: 148,640원 □ 교무금: 120,000원
 □ 구유헌금: 48,950원

*장수

사제관 4-2264 주임신부 강 덕 행
 사무실 사목회장 윤 장 철

- ※ 다음주일은 종도리 봉헌주일입니다.
1. 부녀회: 금일 공식미사후 본당회합실
 2. 사목회: 15일(월) 저녁7시 본당회합실
 3. 요센청년회: 20일(토) 동화광소
 4. 성당신축을 위한 100만단 봉헌: 본당-477단 성실하신 모후Pr-863단 치명자의 모후Pr-257단 평화의 모후Pr-2,864단 구세주의 모후Pr-3,220단 수분봉자의 모후Pr-185단 함께7,871단 누개464,093단
 5. 금주전례: 헤설-김영만 독서①박동표 ②권봉조
 기도-청년회 봉헌-
 차주전례: 헤설-신년회 독서①이병오 ②우명순
 기도-치명자의 모후Pr 봉헌-모규석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111,600원 □ 교무금: 460,000원

*진안

사제관 33-0750 주임신부 박 찬 길
 사무실 2-2541 사목회장 함 연 국
 수·유 2-2293

1. 모임: ①레지오 단원 연흥친목회-17일(수) 오전10시 본당에서 ②올드레아-다음주일 오후1시 오양광소에서 ③제대회-19일(금) 저녁미사후
 2. 교육: ①에비자 교리-매주일 공식미사후 유치원에서 ②신앙강좌-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③중·고입원연수-20~21일 부주자연학습원에서
 3. 금주가정방문: 군하리1반-16일 군하리2반-18일 군하리3반-19일 4. 제대초 봉헌하실분 사무실에 접수: 1개당 1,200원
 5. 소화유치원 및 유아원 원아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유치원, 본당사무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대상: 유치원- 유아원-
 6. 연중봉헌금(교무금): 미납되신분 속히 완납하시고 90년 교부방문의껏 자진 신입합니다. 7. 금주성당청소: 군상리 3반
 8. 차주전례: 헤설-홍성춘 독서①전강표 ②김병진
 기도-김병진 봉헌-이성보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208,480원 □ 교무금: 610,000원